

영랑 시인 감성 배우러 강진으로 오세요

강진군 '영랑시인 감성학교' 전국 학생들 잇단 발길

김영랑과 강진 바로알기·시 낭독기법 등 감성교육

강진군 시문학과 기념관이 운영중인 '영랑 시인 감성학교'가 개강 한달 만에 강진은 물론 전국 학생들의 감성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2014학년도 강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시행중인 '영랑 시인 감성학교'가 지역성을 벗어나 서울지역을 비롯해 부산, 제주 등지에서 각급 학교의 문학체험 학습이 잇따르고 있다.

울 신학기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 강진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간 '영랑 시인 감성학교'는 연말(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12시)까지 강진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육일정이 잡혀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대 국어교육과 120명의 문학체험을 시작으로 2일 해남공고 특수학급과 19일 제주 오현고(410명), 5월 7일 서울 휘문고(160명)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영랑 시인 감성학교'는 1930년대 우리나라 순수 서정시를 개척했던 영랑 김윤식(1903~1950) 시인의 시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학적 잠재력 개발과 인문학적 소양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김영랑 시인과 강진에 대한 바로알기 ▲시 낭독 기법 ▲청자접시에 꿈 새기기 등 교육과 문화, 흥미를 가미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학생들의 문학적 관심을 끌



최근 강진군 시문학과 기념관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영랑 시인 감성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자 접시에 미래의 꿈을 적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어내는 인문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자금은 강진지 역 초등학생의 정규 교과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강진을 한번쯤 다녀갈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화순 고인돌문화사업단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

(사)고인돌 문화사업단(대표 문인수)이 최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화순지역에서는 (사)호남 영정 국악연수원에 이은 두번째 사회적 기업 선정이다.

(사)고인돌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전통문화관광 상품개발 ▲문화공연 예술단 운영 ▲나눔작품 갤러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등을 받게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 북이도서관 개관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립된 장성군 북이 도서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6억원·군비 4억원)이 투입된 북이 도서관은 연면적 609㎡ 규모로 1만권의 장서를 비롯해 성인 열람실·구연 동화실·종합 자료실·문화교실 등 공간을 갖췄다. <장성군 제공>

나주공공도서관 '다함께 두런두런'

문광부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2년연속 선정



나주 공공도서관(관장 김복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4월부터 11월까지 '다(多)함께 두런두런(Do Learn Do Lear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함께 두런두런'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책 놀이터 과정 ▲이주여성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 영어지도사 자격증 과정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접수는 15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나주 공공도서관(061-330-672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영암 상대포 공원 나무다리 생겼다

길이 125m 대형목교 준공

영암군이 관광개발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대포 역사공원에 125m 길이의 대형 목교(나무 다리)가 준공됐다.

상대포 역사공원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호수공원으로 ▲2000마리의 비단잉어가 팔치는 아름다운 무지개색 호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250주의 수목을 헌수해 조성한 군민헌수공원 ▲튕림, 장미, 대나무, 목련, 개나리, 철쭉, 창포, 수련, 연꽃 등을 식재한 사계절 꽃피는 정원 ▲적송과 상대포 폭포가 어우러진 멋진 포토존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군민이나 관광객들의 운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호수주위를 한바퀴 돌수 있는 1.5km의 산책로가 개설돼 있으며,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상대포 정자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군은 대형 목교를 설치해 다양하게 조성된 정원과 수변지역을 거닐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대포 역사공원은 군민이 중심이 돼 문화와 여가를 즐기면서 상호교류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 명품공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북

단신

순창군 친환경농업 100억 투자받는다

친환경연구센터 설립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4년도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100억원(국비 50억·도비 15억·군비 35억원)의 투자지원금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 공모 및 선정을 위해 2년전부터 경남 고성군, 충북 괴산군, 전남대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준비해 왔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유기농 실증 연구온실, 토착 미생물 등 연구·생산 실증화 플랜트시설 건립과 각종 연구시설장비 구입 등이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초실용화 연구와 컨설팅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사또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7년연속 상설문화공연 선정

7년 연속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이 지난 30일 본격 시작돼 11월까지 운영된다.

매년 봄과 가을 주말 남원관광지 '사랑의 광장'을 출발해 광한루원에 서 마당극 '춘향전'을 선보여온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은 다양한 즐거움과 해학적이고 유쾌한 웃음으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순수 남원시민 90여명으로 구성·운영돼 온 신관사또 공연단은 올해에도 재미있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규 공연단원 모집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한층 더 변화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는 '지리산권 방문의 해'와 '관광주간' 운영 등 국내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9일 서울과 대전역 등 수도



매년 봄과 가을 주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던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이 지난 30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 장면. <남원시 제공>

권 다중집합 장소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4월에 열리는 대구·경북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해 경남·북권 관광계 유치활동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중국 연변 관광국에서 초청연수를 온 중국 관광홍보 마케팅 전문가와 협력해 남원의 관광자원과 축제, 전통문화 등을 알리는 중국관광객 대상 공연상품과 코레일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개발중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군 MTB 종합대회 성료

황대군·고속미 남녀 우승

국내 첫 MTB(산악자전거) 종합대회인 고창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성료됐다.

지난 29~30일 이틀간 고창 MTB 파크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각 부문별 1위는 ▲XC(올림픽) 상급자 일반부 남자 황대군 ▲DH(다운힐) 일반부 남자 황대군 ▲DH(다운힐) 상급자 일반부 남자 박준성 ▲En-

duro(엔듀로) 상급자 일반부 남자 강태혁 ▲XCM(켈리지) 상급자 일반부 남자 권진욱 ▲Dualslalom(듀얼슬라럼) 중급자 박준성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통합 여성부 각 부문별 1위는 ▲XC(올림픽) 고속미 ▲DH(다운힐) 주민희 ▲Enduro(엔듀로) 광복희 ▲XCM(켈리지) 한해련 씨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30일 고창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MTB 동호인들이 역주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이강수 군수는 "고창 MTB 파크는 전국 MTB동호인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파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음형기자 cy0370@

정읍시,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본격 운영

정읍시가 전북도 주관의 2014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2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8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의 달인, 정리수납(1급)'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복차 만들기' 등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 Job GO~!(잡고)로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에 시비 850만원을 합쳐 총 1700만원을 투입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도·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생 학습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친환경 발효미생물 심포지엄 개최

순창군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건국·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관련 협약을 맺은 기관과 함께 지난 31일 장류사업소 세미나실에서 산·학·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 ▲향토 농산물과 건강발효 미생물 ▲순창 토종 곰팡이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육성 등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심포지엄 행사장에서는 순창의 건강·친환경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된 20여종의 제품을 선보이는 성과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군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건국·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관련 협약을 맺은 기관과 함께 지난 31일 장류사업소 세미나실에서 산·학·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 ▲향토 농산물과 건강발효 미생물 ▲순창 토종 곰팡이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육성 등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심포지엄 행사장에서는 순창의 건강·친환경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된 20여종의 제품을 선보이는 성과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MOU 체결

고창군은 지난 28일 농촌진흥청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나무딸기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음형기자 cy0370@

지난 2007년 나무딸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초창기 100점이던 나무딸기 유전자원을 현재 270여점으로 늘렸다. 수집자원 종류도 야생 복본자를 비롯해 산딸기, 아로니아 등 다양하다. /고창=음형기자 cy0370@

군산해경, 보령해경 개청으로 관할구역 변경

4월 1일부터 충남 보령 해양경찰서가 개청함에 따라 군산 해양경찰서의 관할과 조직이 일부 개편된다.

군산해경이 담당하던 전북과 충남 서천군 해·육상 가운데 전북 해·육상은 군산해경이 담당하고, 충남 서천군 해·육상은 보령해경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에 있는 홍

원·장항 등 파출소 2곳과 마량 출장소 등 출장소 6곳, 민간인 대행신고소 5곳의 관할이 보령해경으로 이전된다. 군산해경 관할에는 해방·새만금·변산 등 3개 파출소와 출장소 1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 25개로 일선 치안부서가 일부 축소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